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3. 10.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성 창 현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김 희 재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1팀	팀 장 담 당 자	유 보 영 박 지 민	전 화	044-202-3711 044-202-37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 장 담 당 자	신 현 두 윤 동 빈	전 화	044-202-2473 044-202-2474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리1팀	팀 장 담 당 자	한 상 균 이 웅 채	전 화	044-202-3232 044-202-3244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송 준 현 장 태 영	전 화	044-202-3725 044-202-3726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양 동 교 김 성 겹	전 화	044-202-3730 044-202-373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및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및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을 논의  
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자재 확보나 대체재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마스크  
생산업체에 최대한 신속히 구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콜센터 등 집단발병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관련 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 1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 교육부는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 정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에게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돌봄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 아울러 학부모·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긴급돌봄 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시·도 교육청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질 없는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시·도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 대구·경북 지역 방역 관리 상황

□ 3월 10일(화)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63명이며, 경북 지역의 확진자는 총 1,117명이다.

○ 일주일간 대구 지역 확진자는 3월 4일 4,006명(전일 대비 +405명), 3월 5일 4,237명(+321), 3월 6일 4,694명(+367), 3월 7일 5,084명(+390), 3월 8일 5,381명(+297), 3월 9일 5,571명(+190), 3월 10일 5,663명(+92)으로 나타났으며,

○ 경북 지역은 3월 4일 774명(+89), 3월 5일 861명(+87), 3월 6일 984명(+123), 3월 7일 1,049명(+65), 3월 8일 1,081명(+32), 3월 9일 1,107명(+26), 3월 10일 1,117명(+10)으로 파악되었다.

※ 각 날짜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감소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면서 지난 3일간 대기 환자 수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지역에 1,676병상, 경북 지역에 1,010병상을 확보하였으며,

○ 대구 지역에 255병상, 경북 지역에 200병상의 가용 병상을 확보, 신속한 입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치료 병상 또한 확충하고 있다.

- 우선, 16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3월 중 254병상을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상 확충을 요청할 계획이다.

### 3 생활치료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0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에 총 2,071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9명, ②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210명, ③경북대구2(농협교육원) 217명, ④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97명, ⑤경북대구4(한티 대구대 교구 피정의 집) 68명, ⑥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45명, ⑦충남대구1(우정공무원 교육원) 308명, ⑧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6명, ⑨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368명, ⑩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110명, ⑪충북대구2(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55명, ⑫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 기숙사) 308명

○ 전일 대비 센터에는 423명(자택 격리 중이었던 경증환자)이 추가 입소하였고,

-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자 등 총 4명이 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 또한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에서 10명이 완치자로 판정 후 격리해제되어,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6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다.
- 새로 개소한 충북대구1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는 일산 병원이, 경북대구7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에는 강원대학교 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이 파견되어 안정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기존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인천한림병원 등

○ 오늘 오후에는 경북대구8센터(경주 현대자동차연수원)가 추가 개소하여 총 280명의 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며, 서울아산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지정된 12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67명, 간호사 106명, 간호조무사 77명 등 총 28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센터별 전담 협력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료진 소속 병원과 협진 및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해 있던 환자들이 증상 발현(악화) 시, 센터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센터 소재지 시·도에서는 관내 환자가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관할 시·도에 위치한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4 요양병원 현장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협조를 받아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점검하여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3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대구·경북 지역 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원인 불명 폐렴환자 533명(179개소)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457명, 3. 5. 기준) 대상 전수조사 또한 실시하고 있다.

- 조사는 시·군·구 보건소의 이동 검체 채취팀이 방문하여 검체 채취를 하여 수탁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3월 13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5 신천지 신도·교육생 중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신도·교육생 중 특히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와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1,363명은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 이번 조치는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3월 5일) 시, 추가 확보된 정보(직업 정보 등)를 분석한 결과,
  -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전체 종사자 21만여 명\*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1,137명과,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 받아 신도 명단과 비교·분석
  - 간병인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226명 포함, 1,363명을 선별한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 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명단과의 차이 등을 분석 중이며, 추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6 코로나19 대응 업무 자원 군의관 후보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 96명의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하여,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업무 수행 시 군의관 후보생의 군사 훈련 기간을 6.5주(3. 11.~4. 24.) → 2주(4. 10.~4. 24.)로 단축하기로 결정

- 이번에 배치하는 군의관 후보생은 모두 전문의이며, 이 중에는 각 지역 의료기관의 충원 요청이 가장 많은 내과 전문의 60명(전체의 63%)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주간, 각 시·도\*에 배치되어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총 10개 시·도에 배정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전남)

-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에게는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생활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근무 종료 후 9일(4.1.~4.9.) 동안 의료현장 근무 중 발생한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여 동 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 7 일본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 현황

- 정부는 3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다.
  - 지난 2주간(2.26~3.8)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 평균 4,770명이었으나, 특별입국시행일(3.9) 일본발 입국자 수는 518명으로 89% 급격히 감소하였다.
  - 9일 하루 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였으며,
    - \* (공항) 인천 9편, 김포·김해 각 1편 (항만) 부산 5편 부산신·인천·울산·여수·광양 각 1편
  - 이 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발 입국자에게는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여,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 \* 특별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제한된 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
-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2일 이상 유증상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하며,
  - 지속적으로 자가진단 무응답자는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 8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계획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참고,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별첨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4. 감염병 스트레스 대응수칙 홍보자료  
5.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6.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7.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 붙임1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 <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 26.) >



코로나19 상담원 "시X XX아"...물상식한 장난전화 / YTN

▲ 1339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 26.)

→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 <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 1.) >

중국 유학생들에게 제공된 도시락  
문재인 이름과 청와대문양이 그려져있다  
대구에 특송걸고 달려간 우리의료진들은  
심지어 숙소마저 자비로 해결하라고  
방호복 대신 가운을 입으라 권한다  
우리 의료진들에겐  
너무고마워 어쩔 줄 모르며...  
대구시장상인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줬다한다ㅠ



▲ (도시락 사진)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도시락

▲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 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 (3. 1. 기준)

## 붙임2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